



제목	Exploring Turkish Cultur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발행일	2010. 12. 31.
저자	Laurence Raw
출판도시	Newcastle upon Tyne
페이지수	410
ISBN 또는 ISSN	978-1443826396

내용 요약

이 책은 3부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는 교육과 문화, 정치 관련 14개의 에세이가 들어있고, 제2부에는 연극 주제의 에세이 7개, 제3부에서는 영화를 주제로 하는 에세이가 8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에세이의 특징은 동과 서, 이슬람과 기독교, 아시아와 유럽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에세이의 저자 역시 배우, 감독, 비평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터키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터뷰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편견이나 큰 오해 없이 터키의 현대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년 동안 터키에서 살아온 저자의 역사적 분석, 논평, 평가를 결합해 놓은 '터키 문화 탐사'는 현대 터키 문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한다.

제1부에서 저자는 '간문화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다. 그리고 학제 간 연구와 문화학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유럽연합과 터키 교육시스템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터키 식 맥락에서 포스터모더니즘들을 논하기도 한다. 그 밖에 터키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글,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과 박물관 마케팅을 주제로 한 에세이, 번역의 시학과 정치학을 다룬 글 등도 있다. 제2부 '연극'편에서는 셰익스피어 희곡 작품 『네 멋대로 해라』의 터키어 번역 관련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터키 식으로 해석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저자도 있다. 제3부 '영화'편에서는 터키와 아랍 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 최근 터키의 장편 기록 영화, 최근 터키의 역사 소재 영화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포퓰리즘 등 영화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